

행정통합 큰 그릇에 ‘미래 먹거리 전략’ 담아내야

행정통합 ‘전남광주특별시’ 발전방안 및 제언

①) 프롤로그

- ②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 ③ 군 공항 이전·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④ AI·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
- ⑤ 글로벌관광벨트 구축
- ⑥ 광역교통망 재정비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남아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기회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 통합은 그동안 소외됐던 광주·전남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생존전략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통합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도전인 셈이다. 전남광주특별시를 통해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라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대규모 국제사업 추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새천년을 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맞춰 지역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제언을 기획한다.

광주와 전남은 본래 ‘전라도’라는 이름 아래 천 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해 온 역사·문화 공동체였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적으로 분리된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생활권과 경제권은 여전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수년 전부터 두 지자체는 각자도생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제공동체 즉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을 모색해 왔다.

▶관련기사 2면

여기에 이제명 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 일극체에서 벗어나 지방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전국을 ‘5국 3축’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고, 6·3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 단체장이 선출되면 전남도와 광주시 각각이 아닌

정부 전폭적 지원 속 ‘AI·에너지’ 구체화 방안 마련
산단·기업 유치 관건 ‘접근성’…무안공항 활성화 필수
넓어진 행정구역 광역교통망 구축…동일생활권 형성

새로운 거대 지방정부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이에 맞춰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성장 동력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특별법과 통합 특례 등에 포함되거나 추진돼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전남과 광주 통합에 맞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AI·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산업역량과 전남의 에너지·우주·바이오 자원을 결합해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AI·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산업은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꼽힌다.

정부가 전남의 서남권에 RE100국가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의 입지로 낙점했다는 점은 지역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오랜 갈등과 정체가 지역 성장을 막고 있던 광주군·민간 공항의 이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도 중요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본격 논의됐으며 18년만인 지난해 12월17일 광주시·전남·무안군·국토교통부·옛 기획재정부·국방부가 통합 이전을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군공항 이전 법적 절차인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정’에 앞서 무안 주민 대상으로한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AI·에너지 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남에 부족한 접근성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KTX와 연결될 무안국제공항이 주요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남부권에 머물러 있던 관광벨트를 광주 근교권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관광벨트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는 예술·미식·도시문화 중심지, 전남은 섬·해양·치유·생태·체험형 관광의 보

고로, 각자의 강점을 더해 관광권역의 확장으로 방문형 관광이 아닌 머무는 체류형·순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문화시설 설립도 우선순위에 서 밀려선 안된다.

전통적으로 도박과 사행시설로 인식되던 카지노는 이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카지노를 찾은 관광객도 개인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바뀌고, 단순한 개입을 넘어 힐링과 심의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대안으로 뜨고 있다.

카지노 운영자들이 테이블 게임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호텔과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음식점 등이 들어 포함된 소위 복합리조트로 확대 재편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광주전남지역에, 특히 군 공항 이전 후 활용 방안이 모색 중이 광주 군공항 기존 부지 일부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방안도 힘을 싣고 있다.

이와 함께 넓어진 행정영역을 아우르는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통합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320만 규모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1시간 단일 생활권’을 구축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산업단지·항만·공항·에너지 인프라 간 연계가 강화돼 기업 생산성과 광주 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비롯해 광주시는 ‘광주 신산업선’과 ‘광주~전주선’ 2개 노선의 철도망을, 전남도는 광주~화순 광역철도, 장성함흥~광주임곡간 지방도 개선사업, 광주 삼도~함평 나산 확폭공사, 광주 망월~담양 금현간 도로개설 등 신규로 추진 중이다.

▶2면에 계속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과에 전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7월 ‘전남광주특별시’ 탄생 닷 올랐다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당론 발의…설 전 통과 목표
“서울특별시 준하는 위상”…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마침내 국회 입법 단계에 진입하며 분개도에 올랐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광주와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한다.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특별법은 총 8편,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와 운영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재정·조직·인사 분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우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한다.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특별법은 총 8편, 380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핵심인 특례

조항은 300개 안팎에 이른다. 총칙 제1조에 ‘광주 정신’을 명확히 했고, 정부가 밝힌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이후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국제 세목 이양과 우대, 총리실 산하에 별도기구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과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 등을 특례로 묶어 고질적인 재정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 광역단체장 후보 9일까지 공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신청을 2일부 터 오는 9일까지 공모한다.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신청 공모’를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모 대상은 현직 국회의원, 현직 단체장 등 모든 입후보 예정자이다.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관리당원이어야 하며, 성평등 교육 포함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수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등록비는 700만원으로, 20대 청년 및 중증 장애인은 면제토록 했다. 만 30세~45세 이하 청년·만 65세 이상은 50% 감액된다. 다만 현역은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시·도당 홈페이지 공모를 참고하면 된다. 이는 공관위가 지난 27일 국회 분청 당대표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의결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공관위는 1차 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공모의에도 예비후보자 검증 소위원회 설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에 대한 운영 규칙, 공천심사 및 경선 감소 적용 예외, 광역단체장 후보자 적합도 조사 진행, 예비후보자 홍보 온라인 플랫폼 정보 공개 항목 등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특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 지정회원 위일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VVIP (B형)	700		- 회원업증, 무기명 1매, 골프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 1팀 기준 /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멸형 / 1월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 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happinesscc@hanmail.net

· 골프호텔 객실

